

# 내곡~홍제 신교량 건설사업 이달 중 발주

시, 2019년 완공 목표 추진  
왕복 6차선 규모 건설 계획  
내곡동 교통체증 해소 전망

강릉시 내곡·홍제동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내곡~홍제간 신교량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이달중으로 내곡동과 홍제동

을 잇는 신교량 건설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신교량은 총 길이 162m, 폭 30m 규모로 건설되며 예상 사업비는 240억원이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속도로는 총 길이 355m, 폭 25m 정도이며 신교량까지 포함해 왕복 6차선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이 일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내곡교의 경우 1993년 개설된 이후 남·북간 주요 교통로로 활용돼 왔으나 내곡

동 일원에 아파트 건립이 잇따르면서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지·정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가톨릭관동대가 위치한 내곡동 일원 아파트만 3000여세대에 달하고 직장인까지 합하면 하루평균 수천대의 차량이 내곡교 등지를 통행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내곡교로 차량이 집중되면서 남대천을 건너 양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최소한 3~4차례 교통신호

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시는 당초 내년 2월 동계올림픽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일단 이달중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추후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곡동 일원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더 이상 내곡~홍제간 신교량 건설 사업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